

공간과 장소에 따른 뱀요괴의 존재 양상과 의미

- 이시미와 지킴이를 중심으로

이예지*

<차례>

1. 들어가며
2. 공간과 장소로 살펴보는 요괴의 존재 양상
3. 공간·장소에 따른 뱀요괴의 분화와 의미
4. 공간·장소에 따른 요괴 표상의 변화와 의미
5. 나가며

<국문초록>

이 논문은 뱀요괴 '이시미'와 가신 신앙의 일종인 '지킴이'의 비교를 통해, 공간과 장소가 요괴 표상과 연관이 있음을 밝히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시미는 이무기의 이명(異名)으로 알려진 한국의 뱀요괴이나, 전승되는 이시미 설화에서 이시미는 이무기와 구분되는 층위의 '사냥당해야 하는' 요괴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왔다. 이는 이시미가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뱀'이라는 동물에 대한 공포에 이름을 붙인 것이 '이시미'라 할 수 있다.

이때,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가 있는데, 바로 가신 신앙의 일종인 '지킴이'이다. '지킴이'는 집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가신 신앙으로, 전승되는 설화에서 '지킴이'는 대체로 구렁이를 지칭한다. 지킴이는 집을 지켜주며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녔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층위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이시미'와 '지킴이'의 호명부터 인식 층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이들이 존재하는 곳과 관련있다. 이시미는 주로 자연 속 '공간'에 나타나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요괴로 인식되어왔다. 반면,

* 경상국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지킴이는 ‘생활 장소’인 집이나 마을에 존재하여,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공간은 보편적으로 ‘자유’를 상징하며 사람들은 광활한 공간에서 개방감을 느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간의 개방감은 동시에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도 한다. 반면, 공간에 정의와 의미가 생기면 ‘장소’가 되는데, 장소란 사람들이 이미 인식해온 곳이다. 이러한 ‘장소’는 사람들이 애착을 느끼는 곳이며, 그렇기에 사람들은 장소 그 자체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간성과 장소성은 비단 공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이에 속해 있는 존재들에게도 적용된다. 이시미가 나타나는 곳은 산, 굴 등 자연 공간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시미는 ‘뱀’이라는 동물성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가 강화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반면, 지킴이가 존재하는 곳은 집, 마을 등으로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생활 장소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지킴이는 사람들이 애착을 지니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장소 내에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지킴이는, 이시미와 다르게 집을 지켜주는 ‘의미를 지닌’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공간-장소 인식은 이시미-지킴이와 같은 뱀요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공간-장소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요괴 표상은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화해가고 있다.

주제어 이시미, 지킴이, 이무기, 뱀요괴, 한국 요괴, 요괴, 공간, 장소

1. 들어가며

시대가 지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나름의 논리를 바탕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신이담이 존재하며, 존재하던 신이담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다. 신이담은 지역·시대에 따라 그 형태나 전승 양상이 다양하

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이담에서는 ‘요괴(妖怪)1)’가 자주 등장하는데, ‘요괴’는 중국 고사성어 ‘요마괴귀(妖魔鬼怪)’에서 비롯된 말로 ‘요괴(妖怪)하다’와 같이 신이한 현상 자체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 이러한 요괴는 현재 ‘형체를 지닌 신이한 존재’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신이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데, 한국의 대표적인 요괴로는 도깨비, 이무기, 구미호 등이 존재한다. 요괴는 존재하지만 기나긴 시대동안 괴력난신(怪力亂神)으로 치부당하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요괴는 환상성을 지닌 콘텐츠 소재로 다양한 작품에서 새로이 재창작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작자들을 지금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요괴들이 주목받기도 하였으며, 2010년대 이후로 이를 정리한 ‘요괴백과사전’류들이 편당 등을 통해 발간되었다.²⁾

이처럼 근래 요괴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도 ‘뱀요괴’는 요괴 중에서도 꽤 독특한 표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뱀의 형태를

- 1) ‘요괴(妖怪)’는 일본을 중심으로 학문적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고 일본 문화에서 자주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요괴’라고 하면 일본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상으로서의 ‘요괴’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괴’라는 용어는 우리 문헌 속에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용어이다. 문헌에서 ‘요괴’는 ‘이 현상이 요괴(妖怪)하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보았을 때 ‘요괴’ 기준에 인식되던 마(魔)의 성질을 지닌 형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붙이는 일종의 명명(命名)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요괴’라는 용어에 대한 기존 인식을 확장해 이시미와 지킨이 모두를 요괴현상의 일종으로 보려 한다. 이상의 내용은 최인학, 『한국신이요괴사전』, 민속원, 2020, 5~7쪽; 고마쓰 가즈히코 편저, 천혜숙·이정희 옮김, 『요괴학의 기초지식』, 민속원 아르케북스, 2021; 고마쓰 가즈히코, 박전열 옮김,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2009의 내용을 참조한 필자의 석사논문 이지, 「한국 설화 속 ‘이무기’ 표상 연구」, 경상국립대 석사학위논문, 2024a, 1쪽에서 다룬 요괴 용어의 논의를 확장하였다.
- 2) 고성배(물고기 머리), 『한국 요괴 도감』, 위즈덤하우스, 2019; 광재식 저 이강훈 그림, 『한국 괴물 백과』, 위즈덤프레스, 2018; 최인학, 『한국신이요괴사전』, 민속원, 2020 등이 있다.

지닌 요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광포하게 존재한다. 이 뱀은 지역 및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하기도 하나, 전세계적으로 뱀은 두려움의 존재든, 신성의 존재든 어떤 ‘의미’가 있는 동물로 여겨졌다.³⁾ 이에 한국 역시도 뱀요괴에는 ‘명명(命名)’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다양한 한국의 뱀요괴 표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한국의 뱀요괴에 해당하는 표상으로는 이무기, 이시미 등이 있다.⁴⁾

이 중 대표적인 뱀 요괴 ‘이무기’의 경우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보양이목(寶壤梨木)>부터 그 설화가 알려져 있으며 문헌 및 민간 전승으로 그 존재가 잘 알려져 있으나, 다른 뱀 요괴들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시미’의 경우 이무기의 방언 혹은 다른 말로 알려져 있을 뿐, ‘이시미’라는 존재가 어떤 뱀요괴를 의미하는지, ‘이시미’라는 존재가 민간 전승에서 어떤 의미로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단지, <꼭두각시놀음>의 한 대목에 나오는 이물의 일종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⁵⁾ <꼭두각시놀음> 및 설화에서 나오는 이시미는 이무기와 그 묘사와 용이 못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하여, 지금까지 이무기의 방언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이시미’라는 뱀요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3) 뱀요괴 여러 다층성에 대해서는 유형동·이명현, 「뱀[蛇] 서사의 다층성과 문화콘텐츠로의 재현- 사신(蛇神)과 요괴의 성격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을 통해 뱀 요괴를 신성(神性)과 마성(魔性)의 측면에서 본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4) 이무기의 방언이자 뱀요괴의 일종으로 인식되어온 ‘강철이’의 경우 여러 문헌을 검토해본 결과 ‘뱀’의 형상보다는 소나 말처럼 ‘다리가 달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본고에서 강철이에 대해서는 제외하려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예지, 「강원도·북강철이 -문화유산으로서 강철이 설화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74, 한국구비문학회, 2024b에서 고찰한 바가 있다.

5) 그러나, <꼭두각시놀음>에서 이시미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무기와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락용, 「한국 전통 인형극에 등장하는 이물(異物) 연구: 영물(靈物)과 괴물(怪物)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 126~198쪽.

며, 이를 이무기의 방언이라고 보기에 그 명명(命名)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어딘가 석연찮은 부분이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점으로 ‘이시미’라는 한국의 뱀요괴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뱀요괴는 결국 요괴의 일종이다. 요괴란, 사람들이 어느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공동체가 명명하기 시작하며 인식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요괴인 이시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시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때, 이시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이시미와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그 인식 층위가 차이 나는 존재와 비교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의 민간신앙의 일종인 ‘지킴이 신앙’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지킴이 신앙’이란 민간신앙 중 가정신앙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가족들의 안식처인 집안에 깃들어 있는 신으로 신의 영력이 가족에게만 미치는 한정된 가족 신앙신이다.⁶⁾ 잘 알려진 지킴이 신앙(가신)의 일종으로는 조왕신, 성주신 등이 있다. 그런데 구전되는 설화에서 지킴이는 구렁이, 황구렁이 등의 뱀으로, 사람들은 이들을 일종의 ‘업신’⁷⁾이라고 인식하며, 지킴이라 명명하는 방식을 통해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집에서 나타나는 뱀이 집과 재물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앙’의 형태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때는 ‘뱀’이라는 동물성이 신성의 영역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킴이 역시 이시미와 마찬가지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녔으나, ‘이시미’의 경우 지킴이와 다르게 그 존재가 인간을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즉,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두 존재가, 나타나는

6) 김형주,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민속원, 2002, 1~302쪽.

7) 업신이란 집에 재복(財福)을 가져다준다는 가정신앙의 일종으로, 대체로 동물의 모습으로 인식된다. 업신의 대표적인 동물로는 구렁이, 족제비, 두꺼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렁이를 업신으로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김형주(2002), 위의 책, 17~46쪽.

곳에 따라서 ‘신앙’적 존재로 대접받거나, 아니면 ‘퇴치해야 할 존재’될 존재로 인식되며 그 층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시미’와 ‘지킴이’가 동일하게 실존하는 동물 ‘뱀’을 통해 표상되면서도, 왜 ‘지킴이’는 신앙의 존재이며, 왜 ‘이시미’는 퇴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를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적용해 보려 한다.

먼저, 공간(Space)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광활하며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적(動的)인 곳을 의미한다. 반면, 장소(Place)란 과밀하며 정적(靜的)인 곳을 의미한다.⁸⁾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장소로 변모한다.⁹⁾ 즉, 장소란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광활함’을 주기 때문에, 이 광활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하나, 동시에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반면, 장소는 ‘과밀함’을 통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는 하나, 동시에 억압이나 답답함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요괴 표상은 이런 장소 혹은 공간을 배제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의 요괴는 그 표상이 나타나는 일정한, 혹은 공통점을 지닌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무기의 경우 대부분 물가에서 나타나며, 이무기라는 요괴의 속성은 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는 동물형 요괴 뿐만 아니라 ‘귀신(鬼神)’이라 불리는 것 역시 비슷하다. 요괴는 공간이나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위치가 필요로 하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관념적 세계의 공간까지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괴’ 표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요괴들이 나타나는 공간 혹은 장소에 대해서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시미와 지킴이를 ‘공간’과 ‘장소’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이 ‘공간’을 통해 어떻게 ‘요괴’라는 현상을 인지하는

8)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ebook), 2장.

9)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위의 책, 3장.

지 그 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상 자료로 『한국구비문학대계』와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이시미와 지킴이 설화를 살펴보려 한다.¹⁰⁾ 『한국구비문학대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전국적인 구비문학자료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타난 이시미와 지킴이 설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정된 지역이 아닌 한국의 요괴로서 이시미와 지킴이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간과 장소로 살펴보는 요괴의 존재 양상

대표적인 한국의 뱀 요괴로는 이무기와 이시미가 있다. 그 중에서 이시미는 지금까지 주목받은 적이 거의 없다. 이는 그 명명(命名)이 이무기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무기의 방언 혹은 다른 표현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구비 전승되는 이시미 설화에서는 구연자들이 이시미와 이무기를 섞어 구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하지만, 이시미가 단순히 이무기의 방언이나 다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

10) 이시미의 경우 <꼭두각시놀음>의 한 대목에 나타난다는 점, <꼭두각시놀음>에서의 이시미가 서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꼭두각시놀음>은 이시미가 나타나는 중요 작품 중 하나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설화 속 뱀요괴들 사이에서의 이시미의 층위와, 그 층위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꼭두각시놀음>을 제외하며 대상 자료를 한정한다. 또한, <꼭두각시놀음>에서의 이시미거리와 현존하는 이시미설화는 이시미가 무언가를 잡아먹는다는 것 외에는 유사한 이야기를 찾기 힘들며, <꼭두각시놀음> 황해도 신천본에 이시미 대신 뱀을 가리키는 산뭉혜(산무애)라는 호명이 쓰인다는 것을 보았을 때, <꼭두각시놀음>에 나타나는 이시미 역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다른 이시미 설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꼭두각시놀음>의 이시미와 이시미 설화에서의 이시미는 분명한 차이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 또한, <꼭두각시놀음>에서의 이시미에 대해서는 최락용(2015)에서 그 기능과 의미를 밝힌 바가 있다. 이를 종합한 논의는 추후 기회가 되면 진행하려 한다.

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 먼저, 이시미의 명명(命名)은 이무기와 꽤 차이가 나타난다. 이시미와 함께 언급되는 이무기나 강철이의 경우, 문헌에서 이목(梨木), 강철(強鐵)이라는 표기로 나타난다. 이는 지금 구비 전승되는 표현인 이무기(이미기), 강철이(강철이, 팡철이)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무기와 강철이의 경우 약 700년 전, 300년 전 문헌의 기록에서 나타난 그 표기와 현재 구연되는 호명(呼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시미가 단순히 이무기에서 변화한 이명(異名)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시미와 이무기의 경우 구연자들이 혼용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이시미 설화만 분리하여 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무기나 강철이 설화와 구분되는 특징이 존재했다. 이무기의 경우 오래 전부터 전승되던 <보양이목(寶壤梨木)>과 연관되어보이는 설화들이 다수 존재하며, 강철이의 경우도 그 양상이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뱀요괴’ 외에도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반면, 이시미의 경우는 단순히 ‘위험한 뱀요괴’ 외에는 다른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무기’나 ‘강철이’가 특정 지역, 특정 설화와 연관이 있는 것과 다르게 이시미는 좀더 보편적인 ‘뱀요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이시미가 비슷한 유형의 요괴 중에서 유독 ‘이무기’와 혼용되었는지도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용(龍)과 친연성이 높아가며, 존재하던 용사(龍蛇) 관념과 더불어 뱀과 유사한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무기는 민간에서 뱀요괴로 인식되어온 이시미와 그 표상이 혼용되기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슷한 존재로 인지되었던 강철이의 경우 실제로는 뱀요괴와 그 형태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시미와 강철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11) 이예지(2024a), 앞의 논문, 51~66쪽.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무기 역시 현재 뱀요괴로 인식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뱀’이라는 동물성괴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시미’라는 표상이 오히려 한국의 보편적인 ‘뱀요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요괴 중 직접적으로 ‘뱀’과 가장 그 친연성이 높은 요괴는 ‘이시미’이다. 이때, ‘뱀’이란 동물성을 지닌 ‘이시미’는 요괴로서 보통 ‘퇴치 당하는’ 역할로 설화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뱀’이란 동물성을 지닌 ‘지킴이’¹²⁾가 업신으로서 가정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뱀’이 ‘집’이라는 장소로 들어왔을 때는 ‘보호’하고 ‘집에 복을 불러오는’ 신앙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이시미’와 ‘지킴이’가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 층위가 달라지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시미 설화와 지킴이 설화를 통해 이시미와 지킴이의 존재 양상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려 한다.

1) 이시미의 존재 양상

『한국구비문학대계』 속 이시미 설화는 총 29편으로 구렁이, 뱀요괴 등 범박한 호명(呼名)이 아닌 특정 요괴를 가리키는 호명으로는 채록된 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또, 이시미와 유사한 요괴로 인식되었던 이무기, 강철이 등과 그 호명이 혼용된 경우를 포함하면 이시미 설화는 총 39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이시미’라는 호명만 단독으로 나타난 이시미 설화와 그 이야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12) 본고에서 말하는 ‘지킴이’란 ‘지킴이 신앙’으로 불리는 가신 신앙 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화 구연자들에게 ‘지킴이’라고 불리는 ‘지킴의 신앙’의 일종인 업신 취급을 받는 ‘구렁이’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것에 한정한다.

〈표 1〉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이시미 설화¹³⁾

순서	채록일	제목	지역	이야기 유형
1	1979.2.26.	평과 이시미	경북	이시미를 속인 인간
2	1979.5.19.	큰 돈으로 산 점괘	서울	자연현상
3	1979.4.6.	이시미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경북	이시미 사냥담
4	1978.10.7.	은혜 깊은 처녀	경북	자연현상
5	1979.4.7.	청도 신선 바우	경북	이시미 사냥담
6	1979.8.18.	이순신 장군의 출생	경북	이시미 사냥담
7	1979.8.10.	석순이 복타러 간 이야기	경남	이시미 보은담
8	1983.12.22.	용계동 지명 유래	경북	자연현상
9	1980.5.24.	이시미 이야기	경남	이시미 사냥담
10	1980.7.21.	이시미와 최판관	충남	이시미 사냥담
11	1980.8.10.	항우 역발산	경남	자연현상/ 이시미 사냥담
12	1984.2.21.	자모연의 유래	경북	자연현상
13	1981.8.7.	주인과 닭	경북	이시미 사냥담
14	1981.1.21.	어변당 박곤 장군	경남	이시미 사냥담
15	1980.8.9.	이무기 용되기	경남	이시미 보은담
16	1982.5.29.	명의 이석한의 의술	경북	이시미 사냥담
17	1982.7.24.	미녀로 둔갑한 지네의 승천	경북	이시미 경쟁담
18	1983.1.16.	허집이굴	경기	이시미 사냥담
19	1983.7.19.	구렁이와 이시미의 용되기 경쟁	강원	이시미 경쟁담
20	1980.8.7.	한실들의 이시미	경남	자연현상
21	1981.5.7.	도독소의 이심이	강원	자연현상
22	1983.10.29.	성병사의 답력	전남	이시미 사냥담
23	1984.2.21.	이심이 가족으로 만든 장고	경북	이시미 사냥담
24	1984.7.24.	구수의 이시미(이무기)	경남	이시미 사냥담
25	2010.1.13.	쇠목소	강원	자연현상
26	2010.2.19.	만경소	강원	자연현상
27	1984.8.22.	병와 선생 괴물 퇴치	경북	이시미 사냥담
28	2013.3.27.	오매자굴과 이시미소	강원	이시미 사냥담
29	2013.4.11.	평과 이시미	강원	이시미를 속인 인간

13) 해당 표의 이시미 설화 분류는 이예지(2024a), 앞의 논문, 35쪽의 이무기 설화 유형 분류표를 참고하여 변형하였다.

<표 1>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시미 설화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 유형은 ‘이시미 사냥담’이다. ‘이시미 사냥담’은 인간을 괴롭히는 마(魔)의 성격을 지닌 요괴 ‘이시미’를 마을 혹은 외부에서 영웅같은 인물이 나타나 이를 사냥한다는 내용으로, 이시미 사냥담에서 이시미는 ‘거대한 뱀 요괴’로 나타난다. 이시미 설화 중 이야기 유형이 이시미 사냥담에 해당하는 설화는 약 51%로, 과반수 이상 해당한다. 이는 이시미뿐만 아니라 이시미와 쉽게 혼용되는 이무기 유형 설화에서 사냥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152편 중 37편으로 약 24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유사한 다른 호명보다 ‘이시미’라는 호명이 나타날 때 사냥담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즉, 이는 설화를 전승하는 사람들·공동체 사이에서 이시미는 ‘퇴치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시미를 포함한 이무기 유형 사냥담 전체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이무기 유형 사냥담은 총 37편인데, 이무기 유형 사냥담에 나타난 요괴의 호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이무기(유형) 사냥담에 나타난 호명(呼名) 유형¹⁵⁾

순서	채록일	제목	지역	호명(呼名)
1	1979.4.6.	이시미 뱀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경북 성주군 대가면	이시미
2	1979.4.7.	청도 신선 바우	경북 월성군 외동면	이시미
3	1979.7.30.	강철이 잡기	경남 거제군 장목면	강철이
4	1979.8.3.	이무기	경남 거제군 사등면	강철이, 이시미
5	1979.8.3.	이무기	경남 거제군 사등면	강철이, 이시미

14) 이예지(2024a), 위의 논문, 73~74쪽.

15) 해당 표의 이시미 설화 분류는 이예지(2024a), 위의 논문, 41쪽의 이무기 설화 유형 분류표를 참고하여 활용하였다.

6	1979.8.18.	이순신 장군의 출생	경북 월성군 감포읍	이시미
7	1980.2.28.	신선 바위	경북 영덕군 달산면	이시미
8	1980.3.15.	나뭇군과 선녀	충남 대덕군 신탄진	이미기
9	1980.5.24.	이시미 이야기	경남 거창군 옹양면	이시미
10	1980.7.21.	이시미와 최판관	충남 대덕군 기성면	이시미
11	1980.8.10.	항우 역발산	경남 진양군 금곡면	이시미
12	1980.10.5.	용개들의 전설	충북 청원군 남일면	이무기, 이시미
13	1981.1.12.	박장군과 이무기	경남 밀양군 상남면	강철이, 이시미
14	1981.1.21.	어변당 박곤 장군	경남 밀양군 무안면	이시미
15	1982.1.12.	임진단 민담(이울곡)	전남 장성군 북이면	이무기
16	1982.1.14.	인덕으로 부자되다	전남 장성군 진원리	이무기
17	1982.2.4.	백산 나무 강치기	경북 의령군 지정면	강치기, 강찌김이
18	1982.2.4.	이무기의 보복 ¹⁶⁾	경남 의령군 지정면	강치기, 찌김이
19	1982.8.4.	명당써서 태어난 최호장군(2)	전북 옥구군 개정면	이무기
20	1983.1.16.	허집이굴	경기 용인군 외사면	이시미
21	1983.5.3.	포수 삼 형제	충남 공주군 우성면	이매기, 이미기
22	1983.8.1.	김자겸 전설	전남 고흥군 점암면	이무래기, 이무러기, 대망
23	1983.10.29.	성병사의 답력	전남 승주군 서면	이시미
24	1984.2.21.	이십이 가족으로 만든 장고	경북 예천군 용문면	이시미
25	1984.7.21.	이맹산 전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이무기
26	1984.7.21.	진교면 지명 유래	경남 하동군 진교면	이무래이, 이무랭이
27	1984.7.24.	구수의 이시미(이무기)	경남 울주군 언양면	이시미
28	1984.8.10.	구수연의 이무기	경남 울산시 북정동	이무기
29	1984.8.22.	병와 선생 괴물 퇴치	경북 월성군 현곡면	이시미
30	2009.2.20.	힘 센 항우장사와 이무기	전남 구례군 봉서리	이무래기
31	2009.3.14.	이무기를 죽인 강감찬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이무기
32	2010.1.30.	이무기 죽은 냇의 복수 때문에 망한 의립사	전북 진안군 백운면	이무기

33	2012.2.28.	제주판관 서툰과 이무기	충남 홍성군 결성면	이무기
34	2013.2.14.	선정비, 명당	경남 사천시 곤양면	이무기
35	2013.3.5.	용지 전설	경남 사천시 곤명면	이무기
36	2013.3.27.	오매자굴과 이시미소	강원 인제군 북면	이시미
37	2016.1.18.	이매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무기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무기 유형 사냥담 중 ‘이시미’라는 호명이 나타나는 경우는 37편 중 18편으로 과반수 이상에 해당한다. 이는 이시미가 이무기 유형으로 인식되어 온 비슷한 요괴 중에서도 더욱 ‘사냥 당하는’ 존재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시미가 이무기 유형 요괴 중에서도 유독 ‘사냥 당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무기 유형의 다른 요괴(이무기, 강철이)와 다르게 이시미는 그 존재 자체가 구렁이(뱀)으로 명확히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⁷⁾ 이를 증명하듯, 이시미 설화에서는 이시미를 지칭하여 ‘이시미라는 구렁이’, ‘이시미라는 큰 뱀’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옛날에, 생곡(筍谷) 이 리, 피리골, 이 피리골의 골짜기에 접어들어서 저기 올라가면, 아주 이, 이목동(梨木洞)이라는 배나무골, 배나무골이라는 거 동네가 있습니다. 배나무골 동네에 만경소¹⁸⁾라는 곳이 있어요. 만경소, 만경소의 그 전

16) 제목은 <이무기의 보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구연자는 강치기, 찌킴이(지킴이)로 호명하였다. 김종만, <이무기의 보복>,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A%B9%80%EC%A2%85%EB%A7%8C&id=POKS.GUBL.GUBL.1_16176&pageUnit=20, 접속일자: 2024.11.12.

17) 이무기의 경우, 가장 오래된 이무기 설화인 『삼국유사』의 <보양이목(寶壤梨木)>에서 그 정체가 뱀이라고 규정되지 않는다. 강철이는 뱀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문헌과 구비 전승되는 자료에서 ‘다리가 달린’ 존재로 나타난다. 이는 사람들이 강철이를 인식하는 형태가 뱀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예지(2024a), 앞의 논문, 51~72쪽.

18) 배나무골 동네 만경소라는 설명 때문에 생활 공간 내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경상남도 의령군 용덕면 이목리는 아주 예전에는 마을터였지만 마을 뒤에 높은 고

설이 아주 깊습니다. 그게, 그,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아마 우리 탄생하기 전에, 탄생하기 전에, 명주 꾸리가, 꾸리 아세요? 꾸리? (네. 실 꾸리미요?) 예, 실 이렇게, 베 짜매는 명주 꾸리, 그게 세 개가 풀렸답니다. 그 깊이가, 그렇게, 그, 아주 깊은 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다가 말을 하나, 이, 저. 평창서, 봉평서, 넘어 댕기는 행인들이 말을 끌고 오다가, 거기 주막이 있었다요. 그래서 그 인제, 곁에다 매어 놓고, 들어가서 주막에다가 점심을 사 먹고, 이려고 나오니깐, 말고 빼만 이렇게 매어 있지. 말은 없더라. 그래서 그, 그, 뭐, 저 **이시미**라 그러나, **구렁이**라고 그러나, 그런, 뭐, 그 소에서, 그, 물 가운데서, 잡아먹었더라. 고삐는 물에 들어갔더라. 그런 얘기, 그런 전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전설에서, 그 후로부터는, 그 거를 만경소라고 불렀습니다. 만경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만경소라는 게 시방까지 흘러지고 있습니다.¹⁹⁾

(중략) 전기 밥통매이로 자기 정신이 없어져부리는 기라. 고마, 그 굴이 다른 기 아니고 이십이 굴이라. **이십이**가 그 굴 속에 들었어 있는 기라. 이십이라 하는 기 큰 또 참 **배암**이라. 이 늪이 고만 사람이 썩 더가뿌리니, 약간 좋으끼라. 고마 참 햇바닥을 딱대 독을 풀어뿌니, 독을 풀어닌게 이 찌리해 울로오디만 난주(나중에) 정신을 잃어 뿌리는 기라. 고마 통백이 채로 막 주 목었빼렸어. (중략)²⁰⁾

개가 있어 논밭 길도 멀고 접근이 어려웠으며, 화적떼가 자주 출몰해 마을 터를 이주 하게 된 곳이다. 현재는 집 터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초목만이 우거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때의 배나무골에 위치한 만경소는 생활환경이라기보다는 장소성을 잃어 다시 공간이 된 곳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령문화원, <지명: 용덕면(龍德面) 이목리(梨木里)>, <https://uiryeong.kccf.or.kr/html/sub03/sub0304.php?mode=view&idx=140>, 접속일자: 2025.2.17.

- 19) 김영택, <만경소>,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D%B4%EC%8B%9C%EB%AF%B8%20%EA%B5%AC%EB%A0%81%EC%9D%B4&id=POKS.GUBI.GUBI.2_4324&pageUnit=20, 접속일자: 2024.11.12.
- 20) 이채화, <이시미 이야기>,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D%B4%EC%8B%9C%EB%AF%B8%20%EB%B0%B0%EC%95%94&id=POKS.GUBI.GUBI.1_16270&pageUnit=20, 접속일자: 2024.11.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시미는 뱀이나 구렁이와 동일시되었고, 사람들은 커다란 구렁이, 뱀을 ‘이시미’라 칭하며 이를 신이담 속 독특한 요괴(妖怪)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거대한 구렁이나 뱀을 칭하는 이칭(異稱)으로 인식했던 경우가 잦았다. 평범하게 자연 공간 속 존재하는 ‘뱀’ 중 크기가 거대하거나 인간을 위협하는 경우, 사람들은 그 뱀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인간이 어떤 대상과 활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명명(命名)하면 요괴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뱀이라는 동물과 ‘이시미’라는 요괴에 적용하자면, ‘이시미’가 일종의 요괴로 인식된 것은, 사람들이 ‘뱀’에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이시미는 자연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뱀, 구렁이 중 사람들을 해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요괴화(妖怪化)시켜 부르는 호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시미는 비슷한 유형의 요괴인 이무기와 다른 층위를 지닌다. 이무기 유형 설화 중 60퍼센트 이상의 내용에서 ‘승천(昇天)’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시미 설화의 경우 29편 중 단 9편에서만 승천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²¹⁾ 또한, 승천과 관련된 9편 중 4편의 설화는 <지네 처녀>나 <구복 여행> 등의 설화 유형에서 ‘이시미’라는 호명이 사용된 것에 해당한다. 그 외의 이시미 설화에서도, 이시미는 승천에 대해, 또 용에 대해 어떤 친연성을 지녔는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²²⁾ 이는 관습적으로 미승천 ‘용’이라 불리며 ‘용’과 친연성을 지니는 이무기와 이시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이시미가 이무기와 다르게

12.

21) 이 역시 높은 비율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이무기라는 표상이 뱀요괴의 일반적인 표상처럼 인식되어왔고, 이에 따라 구비전승되는 이시미 설화에서 이미 이무기와 이시미의 개념이 혼용되어 자주 구연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요괴 표상이 정지된 표상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표상임을 보여주는 점이기도 하다.

22) 이예지(2024a), 앞의 논문, 76쪽.

승천이나 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이시미’를 승천과 거리가 먼, 상대적으로 층위가 낮고 마성(魔性)을 지닌 요괴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시미는 이야기 유형이 ‘이시미 사냥담’이든 아니든 인간을 위협하는 뱀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난다. 이시미는 많은 설화에서 사람을 잡아 먹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복수의 대상이 되는데,²³⁾ 이때 이시미를 사냥하는 사람들은 이시미를 잡으러 이시미의 공간에 직접 침범한다. 이시미가 사는 공간은 대체로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서 떨어진 자연 속에 존재한다. 이시미 설화에서 이시미가 나타나는 공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이시미 설화의 배경 유형

순서	채록일	제목	호명	배경
1	1978.10.7.	은혜 깊은 처녀	이시미	강(낙동강)
2	1979.2.26.	핑과 이시미	이시미	밭
3	1979.4.5.	허미수 형제와 뱀의 혼령(계속)	이시미, 이무이	굴
4	1979.4.6.	이시미 뱀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이시미	산
5	1979.4.7.	청도 신선 바우	이시미	굴
6	1979.5.19.	큰 돈으로 산 점괘(舌十兩)	이시미	강

23) 이시미 설화 중에서는 이시미가 먼저 인간에게 해를 끼쳐 이를 징치하는 유형의 설화도 있으나, 대부분 이시미 설화에서는 그 불행의 이유가 정말 이시미의 행위인지 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 사고 등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시미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것에 가깝다. 이때의 이시미 설화는 징치라기보다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운한 사고를 이시미를 원인으로 돌려 일방적으로 사냥하는 행위로 보인다. 또한, 이시미 설화 중에서는 이시미의 비늘이 돈이 되어 이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사냥하는 유형의 이야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시로는 <오메자굴의 이시미소>가 있다. 이 순례, <오메자굴의 이시미소>,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D%B4%EC%8B%9C%EB%AF%B8%20%EC%9E%A1&id=POKS.GUBLI.GUBLI.2_21978&pageUnit=20, 접속일자: 2025.02.16.

7	1979.8.3.	이무기	강철이, 이시미	바위
8	1979.8.3.	이무기	강철이, 이시미	섬
9	1979.8.10.	석순이 북타러 간 이야기	이시미	굴
10	1979.8.18.	이순신 장군의 출생	이시미	강
11	1980.2.28.	신선 바위	이시미, 지킴이	바위 ²⁴⁾
12	1980.5.24.	이시미 이야기	이시미	늪
13	1980.7.21.	이시미와 최판관	이시미	굴
14	1980.8.3.	이시미	이무기, 이시미	용소
15	1980.8.7.	한실들의 이시미	이시미	산(자골산)
16	1980.8.9.	이무기 용되기	이시미	불명
17	1980.8.10.	항우(項羽) 역발산(力拔山)	이시미	굴
18	1980.10.5.	용개(龍開)들의 전설	이무기, 이시미	못, 늪
19	1981.1.12.	박장군과 이무기	강철이, 이시미	강
20	1981.1.21.	어변당 박곤 장군	이시미	바위
21	1981.5.7.	도독소의 이십이	이시미	용소(도독소)
22	1981.8.7.	주인과 닭	이시미	바위
23	1982.1.18.	창녕군 남지 하늘늪	강철이, 이시미	못
24	1982.5.29.	명의 이석한의 의술	이시미	바다, 강
25	1982.7.24.	미녀로 둔갑한 지네의 승천	이십이	강(한강)
26	1983.1.16.	허집이굴	이시미	굴
27	1983.7.19.	구렁이와 이시미의 용되기 경쟁	이시미	불명
28	1983.10.29.	성병사의 답력	이시미	못(한라산)
29	1983.12.22.	양산 용소 전설	이시미, 지킴이	용소
30	1983.12.22.	용계동 지명 유래	이시미	대룡소
31	1984.2.21.	자모연의 유래	이시미	못
32	1984.2.21.	이십이 가족으로 만든 장고	이시미	못, 늪
33	1984.7.24.	구수(九藪)의 이시미(이무기)	이시미	굴
34	1984.8.22.	병와(甁窩) 선생 괴물 퇴치	이시미	당집 ²⁵⁾
35	2010.1.13.	쇠목소	이시미	용소(쇠목소)
36	2010.2.19.	만경소	이시미	용소
37	2011.3.26.	이무기와 이십소의 유래	이십이, 이무기	용소(이십소)
38	2013.3.27.	오매자굴과 이시미소	이시미	용소
39	2013.4.11.	평과 이시미	이시미	밭

24) 배를 타고 들어간 곳에서 만난 바위이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시미가 나타나는 곳은 강, 굴, 산 등으로 자연 공간에 해당한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이시미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 물론, 2번과 39번 <꿩과 이시미>의 경우 사람들의 작업 공간인 ‘밭’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꿩과 이시미> 설화의 경우 내용은 이시미 설화라기보다는 잘 알려져 있는 <은혜갠은 까치>, <은혜갠은 꿩>이 변형된 내용에 해당한다. 즉, 해당 설화에서 이시미는 꿩이나 까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날 뿐, 그 배경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 두 설화를 제외하고 이시미는 모두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나 생활 환경 외의 곳에 나타나는 요괴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이시미가 나타나는 공간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 외부의 공간이다. 이는 이시미가 사람들이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 밖에 존재하는 미지(未知)의 대상이며, 미지(未知)의 대상이라는 것은 언젠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에 해당한다. 이때의 이시미는 ‘사냥해야 하고’, ‘퇴치되어야 하는’ 대상인 ‘요괴’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이시미의 ‘사냥되어야 하는 요괴’라는 정체성은 이시미가 지니고 있는 뱀이라는 동물성뿐만 아니라, 이시미가 존재하고 있는 ‘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시미는 이시미가 지니고 있는 ‘뱀’이라는 동물성뿐만 아니라, 그 공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때, 이시미와 마찬가지로 ‘뱀’이라는 동일한 동물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뱀’이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표상이 있다. 바로, 가신신앙의 일종인 ‘지킴이’이다.

25) 이시미가 원래 있던 배경이 등장하지는 않고, 당집에서 나타나는 ‘행위’만이 나타난다.

2) 지킴이의 존재 양상

지킴이는 가신 신앙의 일종으로, 집 혹은 생활반경 내에 존재하는 동물, 물건 등을 그 장소를 지켜주는 신앙의 대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킴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집의 장독대를 집지킴이로 인식하거나 장승을 집지킴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비전승되는 설화에서 지킴이는 대체로 집안에 나타나는 동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다른 말로는 업(신)이라고 하는데, 업신은 재복(財福)을 담당한 가택신으로 지붕 위, 용머름 밑이나 곳간, 곡간의 벼섬, 노적거리 등에 존재한다고 믿어진다.²⁶⁾ 업신으로 여겨지는 동물로는 구렁이(뱀), 족제비, 두꺼비, 소, 개, 인간(인업, 업며느리) 등이 있다.²⁷⁾

이처럼 구렁이 등 동물신이 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곡물이나 나무 등을 쌓은 곳에 구렁이나 족제비 등이 나타났는데, 이에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재물의 신인 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⁸⁾ 즉, 이때 집안에 나타난 동물에 의미를 부여하여 업이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업신은 다양한 형태의 동물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가장 보편적이게 업신으로 여겨진 동물은 거대한 구렁이(뱀)이다. 다른 가신신앙과 다르게 업신의 경우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로 표상되기 때문에, 전승되는 설화에서는 이 업신을 ‘지킴이’라고 호칭하기도 하였다. 이때, 언급하였던 것처럼 그 지킴이는 동물 중에서도 대체로 ‘구렁이(뱀)’으로 인식되었는데,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설화에서 지킴이가 등장하는 경우, 그 대부분은 뱀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지킴이 설화 목록은 다음과 같다.

26) 김형주(2002), 앞의 책, 41쪽.

27) 김형주(2002), 앞의 책, 42쪽.

28) 김명자, 「업神考」, 『두산 김택규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농촌간행위원회, 1989, 404쪽.

〈표 4〉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지킴이 설화 목록

순서	채록일	제목	호명	지역
1	1980.2.28.	신선 바위	이시미, 지킴이	경상북도
2	1980.2.29.	세 친구	지킴이	경상남도
3	1981.8.1.	국사봉과 이어송	지킴이	경상북도
4	1981.12.2.	지킴이 건드려 매워진 공갈못	지킴 ²⁹⁾	경상북도
5	1982.2.1.	짐승을 구해 은혜를 입은 사람	지킴이	경상남도
6	1982.9.11.	죽어 지킴이가 된 시어머니	찌끼미	경상남도
7	1984.2.24.	두꺼비의 보은으로 목숨을 건진 처녀	이시미, 지킴이	경상북도
8	1984.8.3.	아들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	지킴이	경상남도
9	1984.8.16.	집 지킴이의 설분	찌끼미	경상북도
10	1984.8.22.	정급자 부자의 행운	지킴이	경상북도
11	2009.1.23.	구렁이를 업어와 부자가 된 안동사람	지킴이	경상북도
12	2009.2.16.	화재를 미리 아는 지킴이	지킴이	충청남도
13	2009.2.23.	세 마리의 지킴이 뱀	지킴이	충청남도
14	2009.2.23.	인업이 나가자 망한 집	지킴이	충청남도
15	2009.2.23.	구렁이 죽이고 생긴 우환	지킴이	충청남도
16	2009.2.25.	방천지킴이 잡고 망한 집안	지킴이	경상북도
17	2009.2.25.	지킴이가 된 할아버지	지킴이	경상북도
18	2009.2.25.	집이 망할 때면 나타나는 구렁이	지킴이	경상북도
19	2009.2.26.	홍룡폭포 지킴이 뱀장어	젤꿈이	경상남도
20	2009.5.29.	통도사 절터 유래담	지킴이	경상남도
21	2009.7.22.	머느리가 손님에게 군소리해 망한 집안	지킴이	경상북도
22	2009.7.23.	지킴이를 모시고 부자가 된 모자	지킴이 (청중) ³⁰⁾	경상북도
23	2009.7.24.	집지킴이 구렁이를 죽여 망한 부갓집	지킴이	경상북도
24	2010.1.27.	집지킴이를 잡고 망한 집	찌끼미	경상북도
25	2010.2.11.	구렁이 죽이고 병사한 외삼촌	지킴이	충청남도
26	2010.6.26.	구렁이를 불에 태운 경험담	지킴이	경상북도
27	2011.1.28.	소금장수와 집지킴이	지킴이	경상북도
28	2011.2.10.	집지킴이의 복수	지킴이	경상북도
29	2011.2.10.	온천 갔다 뱀에게 잡아먹힌 처녀	지킴이	경상북도
30	2011.2.26.	집지킴이 이야기	지킴이	경상북도

31	2011.3.26.	고을의 큰 지킴이 배미	지킴이	경상북도
32	2011.4.24.	초등학교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충청남도
33	2011.5.7.	말 알아듣는 집지킴이 죽인 할머니	지킴이	경상북도
34	2011.5.7.	눈부신 황금지킴이 쫓은 할머니	지킴이	경상북도
35	2011.6.4.	집지킴이 나타나고 패망한 집 2	지킴이	경상북도
36	2012.1.30.	구렁이 죽이고 당한 횡액	지킴이 (청중)	충청남도
37	2012.1.30.	구렁이와 딸의 죽음	지킴이	충청남도
38	2012.1.30.	집이 망하는 징조	지킴이	경상남도
39	2012.2.15.	말귀 알아듣는 텃구렁이	지킴이 (주인) ³¹⁾	경기도
40	2016.1.30.	사람 눈에 띄면 안 좋은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대전
41	2016.2.20.	사람이 죽자 집을 나온 구렁이	지킴이	대전
42	2016.2.21.	지킴이 팔고 잃은 소	지킴이	경상북도
43	2016.2.22.	지킴이 구렁이와 나무 앞에 멈춘 불도저	지킴이	경기도
44	2016.2.23.	엮구렁이 나타나고 죽은 아이	지킴이 (청중)	경기도
45	2017.2.14.	산소 지킴이 해쳐 망한 두 집안	지킴이	경기도
46	2018.2.6.	논지킴이(구렁이) 해쳐 망한 사람	지킴이	경기도
47	2018.2.11.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충청남도

이때, 지킴이란 가신신앙의 대상인 만큼 이시미와 같은 같은 층위의 요괴(妖怪)로서 인식되지는 않는다.³²⁾ 하지만, 사람들이 지킴이에 대해 인식할 때는, 단순히 복을 주는 긍정적인 모습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9) 『한국구비문학대계』 DB 사이트에서는 이를 ‘킴’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구연 채록본을 확인했을 때 구연자는 ‘지킴’으로 언급하였기에 본고에서는 ‘지킴’으로 정정하여 작성하였다.

30) 지킴이(청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설화는, 구연자는 이를 지킴이라고 호명(呼名)하지 않았으나, 이를 함께 듣고 있는 청중 사이에서 ‘그게 지킴이네!’라고 하는 등의 반응이 나온 경우이다.

31) 해당 설화에서는 지킴이를 ‘집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2) 이때 이야기하는 요괴(妖怪)란, 본고의 1장에서 언급한 확장된 의미에서의 요괴를 의미한다.

먼저, 사람들이 업신인 지킴이에 대해 인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업신을 괴롭히거나 집에서 내쫓으면 그 집은 곧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이를 다르게 생각하면, 업신인 지킴이는 신성(神性)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이를 마주하는 사람에게는 지킴이를 ‘쫓아내고 싶도록’ 만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킴이를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지킴이가 바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기 때문이다.³³⁾ 뱀은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며, 사람을 물기도 하기 때문에 뱀을 마주한 사람은 뱀을 위협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뱀은 단순히 혐오의 대상이거만 한 것은 아니다. 탈피(脫皮)를 한다는 점에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존재로 신성시되기도 한다.³⁴⁾ 또한, 뱀은 땅을 기어다닌다는 특징 때문에 지하세계를 표상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며, 그 형태가 남근을 닮아 풍요, 생산, 혹은 권위의 상징으로도 여겨졌다. 특히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으며, 한국의 경우 제주도 지역에 전승되는 서사무가 「칠성본풀이」에서는 업신으로 여겨지는 뱀신이 다양한 신격으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구렁이(뱀)은 긍정과 부정, 양면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민간에서 집안에 나타난 뱀을 업으로 인식해 ‘지킴이’라고 호명하는 부분에서도 이 뱀이 지닌 양면성이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듯, 이시미나 지킴이 모두 ‘뱀’이라는 동물성에서 출발하였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으나 두려움

33) <표 4>에서는 이시미와 지킴이라는 호명을 혼용해서 사용한 설화들이 채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킴이와 이시미를 모두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시미와 연관된 요괴 중 가장 보편적인 호명으로 인식되어온 이무기 외에는 같은 설화 내에서 다른 요괴와 혼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이시미와 지킴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34) 유형동·이명현(2021), 앞의 논문, 554쪽.

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뱀’의 동물성을 지닌 이시미와 지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지킴이가 등장하는 ‘장소’이다.

〈표 5〉 지킴이 설화 배경 유형

순서	채록일	제목	호명	배경
1	1980.2.28.	신선 바위	이시미, 지킴미	바위
2	1980.2.29.	세 친구	지킴미	들
3	1981.8.1.	국사봉과 이어송	지킴이	못
4	1981.12.2.	지킴이 건드려 메워진 공갈못	킴	공갈못
5	1982.2.1.	짐승을 구해 은혜를 입은 사람	지킴미	집
6	1982.9.11.	죽어 지킴이가 된 시어머니	찌킴미	쌀단지
7	1984.2.24.	두꺼비의 보은으로 목숨을 건진 처녀	이시미, 지킴미	사당집
8	1984.8.3.	아들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	지킴미	집
9	1984.8.16.	집 지킴이의 설분	찌킴미	집
10	1984.8.22.	정급자 부자의 행운	지킴미	마을
11	2009.1.23.	구렁이를 업어와 부자가 된 안동사람	지킴이	집
12	2009.2.16.	화재를 미리 아는 지킴이	지킴이	집
13	2009.2.23.	세 마리의 지킴이 뱀	지킴이	집
14	2009.2.23.	인업이 나가자 망한 집	지킴이	집
15	2009.2.23.	구렁이 죽이고 생긴 우환	지킴이	집
16	2009.2.25.	방천지킴이 잡고 망한 집안	지킴이	빨래터
17	2009.2.25.	지킴이가 된 할아버지	지킴이	집(마당)
18	2009.2.25.	집이 망할 때면 나타나는 구렁이	지킴이	집
19	2009.2.26.	홍릉폭포 지킴이 뱀장어	절꿈이	폭포
20	2009.5.29.	통도사 절터 유래담	지킴이	못, 절
21	2009.7.22.	머느리가 손님에게 군소리해 망한 집안	지킴미	집
22	2009.7.23.	지킴이를 모시고 부자가 된 모자	지킴이(청중)	도장
23	2009.7.24.	집지킴이 구렁이를 죽여 망한 부잣집	지킴이	나무더미

24	2010.1.27.	집지킴이를 잡고 망한 집	찌꺼미	쌀단지
25	2010.2.11.	구렁이 죽이고 병사한 외삼촌	지킴이	논
26	2010.6.26.	구렁이를 붙에 태운 경험담	지킴이	집
27	2011.1.28.	소금장수와 집지킴이	지킴이	집(계단)
28	2011.2.10.	집지킴이의 복수	지킴이	집
29	2011.2.10.	온천 갔다 뱀에게 잡아먹힌 처녀	지킴이	온천
30	2011.2.26.	집지킴이 이야기	지킴이	집
31	2011.3.26.	고을의 큰 지킴이 배미	지킴이	집(마을)
32	2011.4.24.	초등학교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학교(초등학교 교실 지붕)
33	2011.5.7.	말 알아듣는 집지킴이 죽인 할머니	지킴이	집
34	2011.5.7.	눈부신 황금지킴이 쫓은 할머니	지킴이	나무더미
35	2011.6.4.	집지킴이 나타나고 패망한 집 2	지킴이	집
36	2012.1.30.	구렁이 죽이고 당한 횡액	지킴이(청중)	집
37	2012.1.30.	구렁이와 딸의 죽음	지킴이	집
38	2012.1.30.	집이 망하는 징조	지킴이	집
39	2012.2.15.	말귀 알아듣는 텃구렁이	지킴이(주인)	집
40	2015.2.28.	명당 지킴이 구렁이 쫓아내고 얻은 화	구렁이	무덤
41	2016.1.30.	사람 눈에 띄면 안 좋은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돌담
42	2016.2.20.	사람이 죽자 집을 나온 구렁이	지킴이	집
43	2016.2.21.	지킴이 팔고 잃은 소	지킴이	나무장작 더미
44	2016.2.22.	지킴이 구렁이와 나무 앞에 멈춘 불도저	지킴이	집
45	2016.2.23.	업구렁이 나타나고 죽은 아이	지킴이(청중)	집
46	2017.2.14.	산소 지킴이 해쳐 망한 두 집안	지킴이	산소
47	2018.2.6.	논지킴이(구렁이) 해쳐 망한 사람	지킴이	논
48	2018.2.11.	구렁이 지킴이	지킴이	학교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킴이가 나타나는 공간은 집, 나무더미, 산소, 학교 등으로 이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해당한다. 지킴이가 자연 공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지킴이가 지키는 자연공간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작업 공간이나,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절 주변의 못인 경우가 다수이다.³⁵⁾

이처럼 지킴이가 나타나는 공간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부의 공간이다. 이는 지킴이가 나타나는 곳은, 동시에 사람들이 친숙하고 그 공간을 ‘안다’고 인식하는 곳이다. 또한, 지킴이가 나타나는 곳은 사람들의 생활 공간 내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킴이가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곳은 ‘집’이다. 집이란, 정말 실제로 위치하는 ‘집’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다수 사람들은 집에서 자라서, 집에서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집에서 많은 돌봄을 받는다. 집이란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장소이며,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³⁶⁾

인간은 집에 애착을 지니고, 집에 애착을 지니게 된 인간은 그 집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인지하게 되고, 이 집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집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아낀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 나타난 지킴이는, 미지의 공간, 외부의 공간에서 존재하는 이시미와 다른 층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집만큼은 아니지만 인간이 생활하는 대부분 공간은 그 나름대로

35) <표 5>에서와 같이 지킴이가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아닌 경계 밖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요괴 인식 체계는 물리적 장소에 의해 완전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식하는 공간-장소의 차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사람이 인식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이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특정 공간을 ‘공간’이라고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연자에게 그 공간이 의미를 지니는 순간 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공간-장소의 개념은 계속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괴 표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그 표상들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혼용되거나 분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6)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앞의 책, 3장.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학교에 가서 가족을 제외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한다. 이때, 학교란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인 동시에, ‘미성숙한 아이’로서 보호받는 공간이기도 하다. 돌담, 계단, 나무더미 등은 집 혹은 집 주변에 위치한 곳이므로 집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마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를 보았을 때, 지킴이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 나타나는 ‘뺨’이며, 지킴이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지킴이를 인식할 때 사람들이 지킴이를 그저 ‘뺨’이라는 동물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뺨’이라는 동물성을 포함해 그 지킴이가 나타나는 ‘생활 공간’, 즉 ‘장소성’과 함께 지킴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지킴이는 생활 공간인 집에 들어온 ‘침입자’가 아니라 원래 그곳에 있는, 집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된다.

앞서 언급했던 이시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킴이를 인식할 때에는 지킴이가 지니고 있는 그 동물성뿐만 아니라, 지킴이가 존재하는 그 공간(장소)의 의미가 개입되어 작용한다. 이를 정리하자면, 이시미와 지킴이 모두 뺨이라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는 신이한 표상(表象)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이시미와 지킴이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요괴, 혹은 신이한 표상(表象)은 그 개별 표상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활동이나 특징 외에도 그 표상이 나타나는 공간이 그 표상을 인식하는 데 강하게 영향력을 미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시미와 지킴이의 존재 양상을 바탕으로, 공간과 장소에 따른 요괴의 분화와 의미를 살펴 보려 한다.

3. 공간·장소에 따른 뱀요괴의 분화와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시미와 지킴이는 둘다 뱀이라는 동물성을 중심으로 인지된 신이한 존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으로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미의 경우 퇴치해야 할 ‘요괴(妖怪)³⁷⁾이자 마성(魔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던 반면, 지킴이의 경우 가신신앙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할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다면, 왜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를 마성(魔性)을 지닌 이시미와 신성(神性)을 지닌 지킴이로 인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시미와 지킴이가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뱀’이라는 동물이 ‘장소’로 인식하는 곳에 나타났는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에 나타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사람들이 먼저 이시미와 지킴이의 성격을 다르게 인식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지킴이 설화에서도 이시미 설화와 마찬가지로 ‘뱀’이라는 동물성이 인간에게 주는 두려움은 그 정도가 약화될 뿐 완전히 사라지는 않는다. 지킴이 설화에서도 사람들이 지킴이를 쫓아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정 부분 내용의 근간에 깔려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이 뱀이라는 존재를 볼 때 공간-장소라는 인식의 틀을 통해 보기 때문에 이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측면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앞서 <표 3>과 <표 5>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시미와 지킴이는 일정 부분 ‘두려움’을 발생시키는 ‘뱀’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나, 그들이 나타나는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시미의 경우 대체로 강, 숲, 굴 등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자연 속에 존재한다.

37) 여기서의 ‘요괴’는 좁은 의미의 요괴를 의미한다.

반면 지킴이는 대부분 집 내부에서 나타나며, 집이 아니더라도 학교, 무덤, 절 등 사람들의 생활 반경에 해당하는 곳에 나타난다.

이렇듯 뱀이 나타나는 곳에 따라서 그 뱀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뱀이라는 동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물이 어느 곳에 위치하나에 따라 동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동물성의 층위 중 특정 부분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어느 곳에 위치하나에 따라 동물성이 인식되는 부분이 달라진다는 말은, 동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공간’이나 ‘장소’냐에 따라 동물성이 다르게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공간’과 ‘장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시미와 지킴이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한다.

1) 이시미의 공간성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시미는 숲, 강, 굴 등 자연 공간 속에 나타난다. 특히, 이시미가 나타나는 ‘자연 공간’은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이라기 보다는, 산을 넘어가거나, 우연히 숲속에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는 미지의 ‘공간’에 해당한다. 이때, 사람들은 이시미뿐만 아니라 이시미가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 역시 지니고 있다.

공간은 사전적 의미로는 물체사이의 공간적 관계의 집합으로써 정의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른 의미로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식하는 구조를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은 보편적으로 ‘자유’를 상징한다.³⁸⁾ 사람들은 광활한 공간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며 개방감을 느낀다. 따라서, 공간은 옛이야기에서 ‘모험’의 경로가 되거나 ‘궁금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간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공간은 ‘자유롭고’ ‘개방된’ 곳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트인 느낌을 주기도 하나 반대로 사람들은 공간의 ‘개

38)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앞의 책, 2장.

방된’ 면에서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³⁹⁾ 공간과 대립되는 용어로 ‘장소’가 있다. 공간에 정의와 의미가 생기면 장소가 된다.⁴⁰⁾ 이 말은 즉 장소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구축된 공간이라는 의미이다. 반대로, 공간은 사람들이 ‘모르는’, ‘미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역의 설화가 있는데, 바로 제주도의 뱀요괴 설화이다.

<이시미와 최판관>

옛날 한라산에는 큰 굴이 있었는데, 이시미가 나와서 사람을 잡아 먹었다. 사람을 잡아 먹지 못하면 흉년이 들게 하여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이로 인해 흉년이 들자, 무남독녀 집안의 딸이 이시미의 제물이 되었다. 이를 알게 된 최판관이 이시미를 죽였고, 처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판관은 뱀 귀신에 의해 죽게 된다.⁴¹⁾

<병와선생 괴물퇴치(1)>

병와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전, 제주 어부들은 이시미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 해동안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해서 처녀들을 바쳐왔다. 그러나 병와 선생이 부임한 후, 이시미의 혀를 잡아 죽여 불로 태워버렸다. 그 이후에 고을이 편해졌다.⁴²⁾

39)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위의 책, 1장.

40)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위의 책, 3장.

41) 박용근, <이시미와 최판관>,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B5%9C%ED%8C%90%EA%B4%80%20%EC%9D%B4%EC%8B%9C%EB%AF%B8&id=POKS.GUBI.GUBI.1_16271&pageUnit=20, 접속일자: 2025.02.16.

42) 이봉재, <병와(瓶窩)선생 괴물 퇴치(1)>,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B%B3%91%EC%99%80%20%EC%84%A0%EC%83%9D&id=POKS.GUBI.GUBI.1_9105&pageUnit=20, 접속일자: 2025.02.16.

<이시미와 최판관>과 <병와선생 괴물퇴치(1)>은 <김녕사굴> 전설로 알려진 이야기와 유사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녕사굴> 전설에서는 단지 ‘뱀’으로 명명되던 존재가 <이시미와 최판관>에서는 이시미로 명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설화는 제주도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는 편인데, 이는 숙종 때 제주도 지역의 뱀신 신앙을 미신의 영역으로 취급하며, 제주목사들에게 뱀신은 일종의 퇴치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⁴³⁾

이런 유형의 설화에서 제주도의 뱀신이란, 국가 권력과 대립하는 지역 신앙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⁴⁴⁾ 그렇다면 이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관리들의 입장에서 제주도란 장소성을 지닌 곳이 아니며, 공간성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존재하는 뱀신 역시 공간성을 지닌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지에서 제주도로 온 관리가 뱀신 신앙을 타파하려는 이야기의 경우에, 이 뱀신 신앙은 ‘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시미’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⁴⁵⁾ 제주도의 뱀신 보통 제주도 지역 내에서 전승할 때는 그 존재가 그저 ‘뱀’으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이시미’로 명명되는 경우는, 제주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해당 설화를 구연하며 관리의 업적을 칭송하는 방식으로 구연되었다.⁴⁶⁾ 이때 제주도의 뱀과 뱀요괴는 구연자와 동떨어진 공간에

43) 이예안, 「도서(島嶼)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 『일본근대학연구』 49, 일본근대학회, 2015, 157쪽.

44) 유형동·이명현(2021), 앞의 논문, 566쪽.

45) 위의 두 설화뿐만 아니라 <성병사의 담력>에서도 이시미라는 명명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승영, <성병사의 담력>,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C%9D%B4%EC%8B%9C%EB%AF%B8%20%EC%A0%9C%EC%A3%BC&id=POKS.GUBI.GUBI.1_11578&pageUnit=20, 접속일자: 2025.02.16.

46) <이시미와 최판관>은 충남 지역, <병와(甁窩)선생 괴물 퇴치(1)>은 경북, <성병사의 담력>은 전남 지역에서 채록된 설화이다. 이 이야기들 모두 <김녕사굴>과 유사

존재한다. 구연자들이 제주도의 뱀을 공간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육지와 떨어진 곳에 존재한 제주도라는 지역에 대한 구연자들의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육지 지역의 사람들이 구연하는 제주도의 뱀이란 공간성을 지니게 된다. 이때의 뱀은 타지역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공간성’을 지닌 이시미에 대한 관념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 뱀신을 ‘이시미’로 명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존재하는 이시미는, ‘뱀’이라는 동물성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간의 자유가 주는 위협은, 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시미가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⁴⁷⁾ 앞에 <표 3>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시미가 살고 있는 곳은 숲, 굴, 강 등 그저 범박한 명칭을 지닌 자연 공간 속이다. 이는 <표 5>에서 지킴이가 존재하는 곳이 집, 학교 등 구체적인 장소였던 것과 대비된다.

이때 이시미는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동물성과 ‘공간’이 주는 위협적이고 모험적인 측면 외에 그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는 어려운 존재이다. 그러나, 위협적인 이시미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실존하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겨내기 어려운 두려움이나 숭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또한, 이시미가 존재하는 공간은 자유롭고 광활하며 위협적인 공간성만 있을 뿐, 사람들이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재(不在)하기 때문에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감녕사굴> 이야기 유형은 이 세 이야기에 비해 양적으로도 훨씬 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미라는 호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육지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던 ‘이시미’라는 표상을 구연자가 새로이 접하게 된 이야기에 대해 명명하였을 수 있으나, 이렇게 공간성을 지닌 대상에게 ‘이시미’라는 명명을 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이시미’라는 명명에 공간에 대한 인식이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7) 이시미가 실수로 자신의 공간을 침범한 인간을 공격하거나 하는 것도, 공간을 침입한 대상에 대해서는 당연한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겪게 되는 인간은 이시미의 공격을 해석하기 위해 이시미의 그 속성 자체를 마성(魔性)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시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지도 못한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동물성’만 강조된 이시미는 사람들에게 ‘미지의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을 위협하는 뱀 요괴’로 인식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이시미는 사람들에게 위협한 요괴, 퇴치되어야 할 존재로서 인식되어 온 것이다.

2) 지킴이의 장소성

살펴본 것과 같이 지킴이는 사람들의 생활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가신(家神)의 일종이다. 지킴이는 업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집안의 재물을 지켜 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킴이 역시 구렁이(뱀)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킴이를 마주하는 사람들은 지킴이의 형태에 겁을 먹어 이를 죽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킴이를 죽이거나 쫓아보낸 이들은 집안이 망하는 일 등 여러 안 좋은 일을 겪게 된다. 이때 지킴이는 일종의 신성(神性)을 가진 뱀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지킴이가 이시미와 다르게 특별하게 신성한 뱀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킴이가 나타나는 ‘공간’이자 ‘장소’이다.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킴이는 생활공간에서 나타나는 뱀의 일종이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지킴이가 집과 같은 ‘생활 공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그 자체이며, 장소는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자체이다.⁴⁸⁾ 장소와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개념적으로는 분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장소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장소는 ‘의미를 지닌 공간’이다. 공간은 정의와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하나의 장소로 변모해간다.⁴⁹⁾ 이때, 의미라는 것은 그 장소에 존재하는 인간이 의식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 이와 같은

48)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17(4쇄), 88쪽.

49)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앞의 책, 3장.

장소는 일종의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사물의 질서 속에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하는 것, 즉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는 것이다.⁵⁰⁾

사람들은 뿌리내린 자신의 장소에 애착을 지닌다. 애착을 지닌다는 것은 그 장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에 해당한다. 이때, 장소를 아낀다는 것은 ‘장소를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두는 것’이며 장소 그 자체에 대한 관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가장 애착을 지니는 장소는 대체로 ‘집’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애착을 지니는 ‘집’이라는 장소는 그저 ‘완벽한’ 장소는 아니다. 어느 때면 천장이 누수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그 집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완벽하지 않은 곳일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집’이라는 장소에 애착을 느끼며, 이를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인식한다. 이는 사람들이 ‘집’이라는 장소의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자체에 애착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시미와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니고 있는 지킴이를 마성(魔性)이 아니라 신성(神性)의 존재로 여기는 것은, 지킴이가 나타나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을 보여준다. 집에서 나타나는 지킴이 역시 사람을 해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쫓아내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그 지킴이 역시 ‘집’이라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다. 지킴이라고 불리는 업신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 업신이 집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집’에 존재하고 있는 구성 요소인 ‘업신’인 지킴이가 집을 빠져나가면 집이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애착을 지니고 있는 장소를 ‘존재하는 방식 그대로 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장소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을 보여준다.

50) 에드워드 텔프 저, 김덕현 외 역(2017), 앞의 책, 95쪽.

이런 부분에서 ‘이시미’와 ‘지킴이’라는 호명(呼名)을 살펴보면 무언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지킴이는 말 그대로 ‘지킴이’, 즉 무언가를 ‘지켜주는’ 존재이다. 그리고 지킴이가 지켜주는 존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집의 재물, 혹은 집 그자체, 논 등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히 집이나 집과 매우 밀접한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장소라면, 그곳에 나타나는 뱀은 지킴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이 옛날부터 그 **무지개절**이라 했거든요. 지금은 인자 **홍룡사**라고 하는데 그래 그런 은자 폭포가 있는데, 폭포 밑에 웅덩이가 굉장히 큰 게 있었습니니다.그 요새는 그 또 개발을 해가 좀 문히가 있는데, 방개를 타고 내려오든 웅디가 이래 큰 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요. 부산사람들이 때로 모아가 와가, 거게다 은자 피래미가 히떡히떡 구부라지이건데 배가 누런 기 마 히떡히떡 뒤비지고 막 놓고 땡기거든요. “여계 참 좋다. 우리 횡거리 먹는 데는 이 아주 그저 그만이다.”커며, (중략) 그저 저 거 **절꿈이라(지킴이라)** 말로 하자면. 응, 그래가지고 그걸 목고 죽은 적이 있고, 사람 하나는 은자 쪼깨이 풀이파리 싸기주가지고, 메늘로 갖다 먹인 그 메느리가 죽다가 근근히 살았어요.⁵¹⁾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킴이(절꿈이)는 폭포 속에 살고 있어 인식밖의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폭포는 홍룡사라는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여기서 지킴이는 홍룡사를 지키는 역할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시미’라는 호명을 뜯어보면 이 호명이 ‘있음’이라는 단어와 유사

51) 김도순, <홍룡폭포 지킴이 뱀장어>, https://kdp.aks.ac.kr/inde/indeData?itemId=14&q=query%E2%80%A0%ED%99%8D%EB%A3%A1%ED%8F%AD%ED%8F%AC%20%EC%A7%80%ED%82%B4%EC%9D%B4%20%EB%B1%80%EC%9E%A5%EC%96%B4&id=POKS.GUBI.GUBI.2_11198&pageUnit=20, 접속일자: 2025.02.16.

함을 알 수 있다.⁵²⁾ 집과 생활 환경에서 나타나는 ‘지킴이’와 다르게 이시미는 그저 그 공간에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듯해 보인다.⁵³⁾ 만약, 이시미를 ‘있음’이라는 존재 양태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시미’와 ‘지킴이’라는 명명(命名) 차이 역시 그 표상이 ‘장소’로 인식되는 곳에서 나타났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공간에 영향을 받은 호명이 다시 그 대상에게 재현되는 현상을 겪었을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가 공간에 따라서 ‘이시미’와 ‘지킴이’라는 명명(命名)으로 인식되었고, 그렇게 인식된 사고가 재현됨에 따라 그 공간에 있는 존재를 ‘이시미’와 ‘지킴이’라고 하며, 그 명명(命名)이 지니고 있는 층위가 또다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⁵⁴⁾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자면, 이시미는 숲속, 동굴, 강 등 사람들이 있다고 ‘인식’은 하지만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공간에서 나타난다. 이때, 사람들은 그 이시미를 애착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공간’에서 나타난 이시미에게는 뱀이라는 동물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상징성이 두드러진 채 사람들에게 인식된다. 그 결과, 이시미는 알 수 없는 공간에 ‘지나가거나’ ‘침입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미지(未知)의 요괴(妖怪)로 인식된다.

반면, 지킴이의 경우 집, 학교, 논 등에 나타나며 사람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나타난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애착을 지닌 ‘장소’에 나타나는 지킴이(뱀)를 그 장소와 동일시하고 그 장소를 구성하는

52) 실제로 구원된 설화에서 이시미를 이스미, 이심이 등으로 호명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53) 이때, 이시미는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존재로 그 특성에 맞게 ‘있을’ 뿐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과 부딪히게 될 경우 인간은 이러한 뱀의 존재 양태를 인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54) 이예지(2024a), 앞의 논문, 78쪽.

요소로 여긴다. 이때 이시미는 장소와 마찬가지로 ‘애착’의 대상이 된다. 물론, 그럼에도 ‘뱀’이라는 동물에게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런 뱀의 부정적인 부분마저도 사람들은 지킴이를 애착이 지닌 ‘장소’의 구성 요소로 느끼며 이를 수호신으로 여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장소에 나타나는 지킴이는 사람들이 치성을 지니기도 하는 등 ‘의미를 지닌’ 신앙적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4. 공간·장소에 따른 요괴 표상의 변화와 의미

이와 같이 표상이 존재하는 곳이 ‘공간’이나 ‘장소’이냐에 따라 그 표상의 층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이시미와 지킴이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표상에도 적용 가능하다. 근래에 요괴의 콘텐츠적 가치가 많이 주목받고 있다. 이때 말하는 요괴란,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물(物)적인 요괴뿐만 아니라 ‘요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포함한다.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요괴’라는 표상은 그 비과학적인 측면 때문에 점점 그 관심을 잃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오히려 근래에 요괴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등이 제작되고 있다. 물론, 그 전에도 요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는 존재하였으나, 근래 제작되는 요괴 콘텐츠의 경우 그 전의 요괴 콘텐츠와 ‘요괴’라는 표상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심형래 감독의 <D-WAR>와 『도롱이』⁵⁵⁾ 같은 경우 동일하게 이무기 설화를 기반으로 제작된 요괴 콘텐츠이지만, <D-WAR>의 경우 이무기의 마성(魔性)이 중점이 되어, <D-WAR>의 이무기는 단순히 처치되어야 할 존재로만 등장한다. 반면 『도롱이』의 경우 이무기가 지닌 그 다층적 층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55) 서이사, 『도롱이』 1-5, 유어마나, 2022.

그렇다면, 이처럼 근래에 와서 요괴 콘텐츠가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러한 요괴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현대사회가 지니고 있는 무장소성의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인다. 현대의 설계는 단일 목적을 가지며,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장소를 제작할 뿐 원래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을 반영하는 장소와는 유리된 채, 비장소적인 도시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⁵⁶⁾ 이때, 장소들은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무장소성을 띄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 역시 찾지 못하게 된다.⁵⁷⁾

장소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장소의 심오하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 집을 설계하는 사람도, 그 곳에 거주하는 사람도 공간의 효율만 고려하며, 그 장소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집’처럼 장소성을 가장 강하게 지닌 장소 역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요괴들이 존재하는 장소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요괴가 지니고 있던 다층적인 측면 중 그 마성(魔性)만 강조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장소에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은, 즉 그 요괴가 존재하는 곳이 장소가 아닌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지킴이에게 그 ‘집’이라는 장소성(의미)이 사라지면 ‘이시미’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존 공간’이 지닌 그 의미가 퇴색되며, 그 실존 공간에 대한 장소성은 점점 줄어가 ‘비장소성’으로 나아가는 반면, 사람들이 인지하는 새로운 층위의 ‘장소’가 발생한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온라인 공간’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실존하는 공간의 그 의미를 잃어갈 때, 사람들은 공간의 의미가 상실되는 상태

56)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2018), 앞의 책, 178~182쪽.

57)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2018), 위의 책, 178~182쪽.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장소에 있으면 공간을 추구하고, 공간에 있으면 장소를 추구한다.⁵⁸⁾ 공간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이 자유에서 위협을 느낀다. 이때 인간은 장소가 주는 안정감을 찾고 싶어하며 장소를 추구한다. 반면, 장소가 주는 안정감을 느낄 때에는 동시에 인간은 이 장소의 안정감을 답답해한다. 이때 인간은 또다시 공간이 주는 광활한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그 장소성이 사라져 갈 때, 사람들은 또다른 곳에서 '자신이 속한 장소를 찾으려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새로이 의미를 부여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공간'이다. 실존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온라인 공간, 특히 SNS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곳에서 그 자신의 본질과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존 공간에서 장소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존 공간에서 자유와 동시에 위협을 느낀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온라인 공간을 포함해 아주 좁고 실재하지 않는 '장소가 주는 안정감, 답답함과 동시에 비장소성에 의해 의미를 잃어가는 실존 공간에 대한 자유와 위협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장소성과 비장소성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공존하는 위치에 놓여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당연히 사람들이 요괴를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장소성과 비장소성이 공존한다는 것은, 장소성이 지니고 있는 신성(神性)과 공간성이 지니고 있는 마성(魔性), 양면적 측면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근래 요괴 콘텐츠는 기술의 발전에도 오히려 그 힘을 잃지 않고, 요괴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때, 요괴 표상을 보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보는 시선과 맞닿아 있다.

58)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2020), 앞의 책, 2장.

장소답다는 것은 인간답다는 것이다.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시킨다.⁵⁹⁾ 그렇다면, 장소의 의미가 사라지고 실존 공간의 대부분이 공간성을 지니게 된 것은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알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를 요괴 표상에 적용한다면, 현대 사회의 인간은 모든 것을 ‘요괴화(妖怪化)’ 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은 유대를 느끼지 못하고, 그 공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 그 공간에 위치한 모든 것은 요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사회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매우 좁고’, ‘실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개념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장소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요괴를 볼 때 ‘실존한다고 생각하는’ 요괴 표상을 요괴(妖怪)로 인지하기는 하지만, 이를 전과 다르게 단순히 마성(魔性)의 존재로 여기지는 않게 된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범위 내의 모든 것이 공간성과 동시에 ‘장소성’을 지닐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요괴는 마성(魔性)과 신성(神性)을 동시에 지닌 요괴이자 요괴가 아닌 다층적인 존재가 된다.

이처럼, 요괴는 단순히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표상(表象)이 아니라, 그 요괴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공간과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 표상이다. 이는 결국 요괴 표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공간과 장소처럼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태도가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59) 에드워드 켈프 저, 김덕현 외 역(2018), 앞의 책, 25쪽.

요괴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요괴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요괴 표상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나가며

이시미는 한국의 대표적인 뱀요괴이다. 그러나, 이시미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무기의 이명(異名)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는 구전되는 설화에서 이시미와 이무기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시미 설화를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이시미에 대한 인식은 이무기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무기의 경우, 미승천 용으로 일정부분 신성(神性)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시미의 경우, 대부분 용과는 관련 없는 존재로 나타나며, 이시미 설화의 대부분은 ‘이시미 사냥담’에 해당한다. 이때, 이시미는 이무기처럼 신성한 존재라기보다는, 실존하는 동물인 ‘뱀’의 거대한 개체, 혹은 ‘뱀’에 대한 두려움이 극화된 요괴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시미는 이무기와는 다르게 특히 사냥당해야 할 마성(魔性)의 요괴로 나타났다.

가신신앙의 일종인 ‘지킴이’의 경우, 이시미와 마찬가지로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닌 신이한 표상(表象)에 해당한다. 하지만, 동일하게 ‘뱀’이라는 동물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시미는 ‘퇴치당해야 할’, ‘사람을 잡아먹는’ 마성(魔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지킴이는 ‘집을 지켜주는’, ‘집에서 나가면 집이 망하는’ 신성(神性)을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시미와 지킴이라는 표상을 ‘공간’과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시미가 나타나는 곳은 굴, 강, 산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공간과는 먼

곳에 해당한다. 반면, 지킴이의 경우 집, 학교, 절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 공간에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시미가 나타나는 곳과 지킴이가 나타나는 곳을 나누자면, 이시미가 나타나는 곳은 ‘공간’이고 지킴이가 나타나는 곳은 ‘장소’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애착을 지닌 장소에 나타나는 지킴이를 그 장소와 동일시한다. 장소에 애착을 느낀다는 것은, 그 장소가 지니고 있는 어떤 측면까지도 수용하고 아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킴이는 ‘뱀’이라는 동물성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부분마저도 애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집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또한, 표상이 존재하는 곳이 ‘공간’이나, ‘장소’냐에 따라 그 표상의 층위가 달라지는 것은 비단 이시미와 지킴이뿐만 아니며, 다양한 표상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근래에 요괴 콘텐츠의 가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요괴 표상은 ‘신이한 것’으로, 어쩌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관심도가 줄어드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요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늘어간다. 대표적인 요괴 콘텐츠로는 <도깨비>, <구미호던>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콘텐츠가 보여주는 요괴 소재 기반의 이야기는, 전의 요괴 콘텐츠와는 다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괴가 지닌 다층적 층위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요괴라는 표상에 관여하는 장소성, 공간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곳의 장소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실존하지 않는 공간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아 이를 장소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성과 장소성은 동시에 존재하게 될 수 있어졌는데,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요괴 표상을 인식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뱀요괴 ‘이시미’를 가신신앙의 일종인

‘지킴이’와 비교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며, ‘요괴’ 표상을 ‘공간’과 ‘장소’의 개념과 접목시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요괴의 공간성과 장소성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그 특징이 명확히 보이는 ‘이시미’와 ‘지킴이’ 외에 다른 요괴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논의들은 추후 연구를 통해 이어가려 한다.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DB, <https://kdp.aks.ac.kr/inde/gubi>

- 고성배(물고기 머리), 『한국 요괴 도감』, 위즈덤하우스, 2019, 1~400쪽.
- 곽재식 저, 이강훈 그림, 『한국 괴물 백과』, 위크룸프레스, 2018, 1~656쪽.
- 김명자, 「업神考」, 『두산 김택규박사 화갑기념 문화인류학논총』, 논총간행위원회, 1989, 403~422쪽.
- 김형주, 『민초들의 지킴이 신앙』, 민속원, 2002, 1~302쪽.
- 서이사, 『도룡이』 1-5, 유어마나, 2022.
- 양재우, 「그림동화에 나타난 뱀의 의미」, 『세계문화비교연구』 8, 세계문화비교학회, 2003, 107~125쪽.
- 유형동·이명현, 「뱀[蛇] 서사의 다층성과 문화콘텐츠로의 재현-사신(蛇神)과 요괴의 성격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549~582쪽.
- 이예안, 「도서(島嶼)에서 본 뱀 설화 비교고찰」,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회, 2015, 139~161쪽.
- 이예지, 「한국 설화 속 ‘이무기’ 표상 연구」, 경상국립대 석사학위논문, 2024a, 1~97쪽.
- _____, 「강원도·불·강철이 -문화유산으로서 강철이 설화의 가능성-」, 『구비문학연구』 74, 한국구비문학회, 2024b, 147~194쪽.
- 이진영, 「뱀의 상징: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연세상담코칭연구』 10, 연세대학교 상담코칭지원센터, 2018, 87~105쪽.
- 전미경, 「뱀(Snake) 상징에 대한 연구」, 『모래놀이상담연구』 18,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2022, 81~99쪽.
-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1~494쪽.
- 최락용, 「한국 전통 인형극에 등장하는 이물(異物) 연구: 영물(靈物)과 괴물(怪物)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0, 한국극예술학회, 2015, 126~198쪽.
- 최인학, 『한국신이요괴사전』, 민속원, 2020, 1~807쪽.

고마쓰 가즈히코 저, 박전열 역, 『일본의 요괴학 연구』, 민속원, 2009, 1~288쪽.

고마쓰 가즈히코 편저, 천혜숙·이정희 역, 『요괴학의 기초지식』, 민속원 아르

케북스, 2021, 1~283쪽.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신의 발명』, 동아시아, 2005, 1~232쪽.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17(4쇄), 1~348쪽.

이푸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ebook).

의령문화원, <지명: 용덕면(龍德面) 이목리(梨木里)>, <https://uiryeong.kccf.or.kr/html/sub03/sub0304.php?mode=view&idx=140>, 접속일자: 2025.2.17.

ABSTRACT

Aspects and Meaning of 'snake monster' in space and place
- with a Focus on Ishimi and Jikim-i

Lee, Ye-j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connection between space and place in the representation of monster through a comparison of the snake monster 'Isimi' and 'Jikim-i', a type of Gasin. Ishimi is a Korean snake demon known by the alternative name of Imugi. However, in the Ishimi folktales that are passed down, Ishimi has a distinct hierarchy from Imugi and is perceived by people as a monster that should be 'hunted'. This is because Ishimi has the animal nature of a 'snake'. So, the name "Ishimi" is based on the fear of snakes.

However, there is another entity that is equally animalized as a snake, and that is the 'Jikim-i,' a type of Gasin. The 'Jikim-i' is a type of 'Upsin,' a Gasin that protects the property of a house, and in the stories that are passed down, the 'Jikim-i' usually refers to a big snake. The guardian is the same animal, a snake, that protects the house and is considered a sacred being that should not leave the house,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how it is perceived by peopl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me and level of recognition of Ishimi and Jikim-i, who share the same animal nature of 'snake', is related to the place where they exist. Ishimi appear mainly in natural 'spaces' and are perceived as threatening to people. Jikim-i, on the other hand, exist in 'places of living,' such as homes and villages, and are perceived as sacred.

Space universally symbolizes freedom, and people feel a sense of openness in vast spaces. However, this sense of openness can also be intimidating. On the other hand, when space is given definition and meaning, it becomes a 'place', which is something people already recognize. These 'places' become something that people feel attached to,

and they become tolerant of them.

This sense of spatiality and place applies not only to spaces and places, but also to the beings that inhabit them. Ishimi appear in natural spaces such as mountains and caves, which are unknown 'spaces' that people do not know. Ishimi's presence in these spaces reinforces people's fear of the animal nature of snakes. On the other hand, Jikim-i's presence is in places that people consider 'meaningful,' such as homes and villages. As a result, they are perceived as elements that make up the places that people are attached to. As a result, Jikim-i, whose animal form is a snake, is perceived as a sacred being who, unlike Ishimi, is 'meaningful' for protecting the home.

These perceptions of space and place affect not only snake monster such as ishimi-Jikim-i, but also various representations of them, and the representations of yokai continue to change due to the changing perceptions of space and place in contemporary society.

Key Words Ishimi, Jikim-i, Imugi, Snake monster, Korean monster, monster, space, place

논문투고일: 2024.12.31. 심사완료일: 2025.02.09. 게재확정일: 2025.02.11.
--